

피터 드러커 경영학

Part1. 기초 이해

Part2. 피터 드러커 경영학

Part3. 피터 드러커 지식경영

Part4. 조직구성원의 자기경영



제1장 피터 드러커, 그는 누구인가



학습목표

- 피터 드러커 교수의 개인에 대해 알아본다.
- 그가 르네상스적 지식인이 된 배경을 살펴본다.
-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자기관리로 93세에 이르도록 세계 지식인들 사이에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을 제시한다.



학습내용

- 첫 만남 회고
- 피터 드러커의 가족사항
- 유년기와 오스트리아
- 청년기의 탐색적 삶
- 장년기의 인생전환
- 노년기의 자기관리

피터드러커 그는 누구인가

예측과 예언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미래학자

- 드러커는 1989년 《새로운 현실》(New Reality)에서 소연방의 해체를 예언
- 드러커 박사의 미래사회관련 저서
《단절의 시대》(1969), 《새로운 현실》(1989),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1993),
《미래의 결단》(1995), 《21세기 지식경영》(1999) 《Next Society》(2001)
- 《Built to Last》의 공저자 짐 콜린스(Jim Collins)
 - “피터 드러커의 수많은 논문들과 심원한 통찰력은 1930년대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의 기원에 관한 선견력 있는 논문부터 시작하는데, 그는 현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가장 의미심장하고도 일관성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기고가들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스며든 ‘효과적인 경영’(effective management)은 자유세계를 지탱케 하고, 독재자와 전체주의가 다시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단 하나의 대안인데, ‘효과적인 경영’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피터 드러커를 능가할 사람은 없다.”

참고서적 : 피터드러커 평전 2001, 이재규저, 한국경제신문사

피터드러커 그는 누구인가

드러커 박사와의 첫 만남, 회고

- 드러커 교수의 생활철학 : “Slow down and speed up”
 (“마음은 느긋하게 그리고 몸은 빨리 움직이고”)
-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목표의식
-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학문연구 :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철학, 경영학 교수, 저널리스트, 경영평론가, 경영 컨설턴트, 소설가 등
 - "사람은 호기심을 잃어버릴 때 늙는다"
 - "인간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면 새로운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MBO의 기본)

“ When do you plan to retire?”

“ I've no desire to retire.”

피터드러커 그는 누구인가

빈의 어린 시절

- 피터 페르디난드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1909년 11월 19일 오스트리아 수도빈에서 출생
- 가정환경 및 교육
 - 부친 아돌프는 오스트리아의 재무성 장관을 지낸 고위 공직자였고, 모친 캐롤라인은 오스트리아에서 최초로 의학을 공부한 여성으로서, 프로이트의 제자였음
 - 좋은 가정환경에서 고전 및 예술을 포함하여 전인적 교육을 받았으며, 부친의 친구였던 조지프 슈페터, 폰 미제스, 프리드리히 하이데크 등과 교류
- 15세 최초의 논문발표 : 파나마운하가 세계무역에 미치는 영향

피터드러커 그는 누구인가

독일에서의 경험, 그리고 독일 탈출

- 베르디와 피디아스의 교훈 : 완벽(perfect)의 추구

- 주세페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가 80세에 작곡한 오페라 팔스타프(Falstaff)의 감동

“19세기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미 유명인이 된 사람이 그리고 그 나이에, 왜 또 오페라를 힘들게 작곡하는가, 그것도 엄청나게 벅찬 주제의 작곡을 하는가?”

“음악가로서 나는 일생 동안 완벽을 추구해왔다. 완벽하게 작곡하려 했지만, 곡이 끝날 때면 늘 아쉬움이 남았다. 분명 나는 한번 더 도전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 피디아스(그리스 조각가)의 일화

“조각의 반대편은 하늘의 신들이 보고 있다.” -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의 완벽을 추구

피터드러커 그는 누구인가

런던 생활

- 나치의 등장과 독일 탈출
 - 드러커 교수의 나치에 대한 시각 : 국가사회주의(전체주의)의 문제점과 종말예상
- 프랑크푸르트 대학 : 국제법학박사학위 취득
 - 첫번째 저서 Friedrich Julius Stahl, Konservative Staatslehre und Geschichtliche Entwicklung 발간
- 런던의 머천트 은행에서의 교훈
 - 머천트 은행의 사장과의 일화
 - “나는 자네가 보험회사의 증권분석사로서는 일을 썩 잘한 것을 알고 있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자네가 증권분석업무를 계속 하길 바랐다면 우리는 자네가 있던 그 자리에 있도록 했겠지. 자네는 지금 머천트뱅크 파트너들의 수석 비서인데도 증권 분석업무를 계속하고 있잖아. ‘지금’ 자네는 무엇을 해야만 할까? 다시 말해 자네의 ‘새로운’ 직무에서 효과적인 사람이 될려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를 생각해보게나”
- 케인스와 쉘페터 : 20C 경제학의 양대 거장 영향을 통해 사안의 양면성을 보는 혜안터득
 - *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 : 국가의 역할 강조
 - * 쉘페터 (Schumpeter, Joseph Alois 1883~1950) : 개인의 역할 강조, 기업가 정신

피터드러커 그는 누구인가

미국 동부와 뉴욕

- 특파원과 대학 강사
 - 1939년 뉴욕 교외 브롱크스빌의 사라로렌스 여자대학(지금은 Sarah Lawrence College) 에서 경제학과 통계학 강의
 - 1942년 버몬트의 베닝턴 대학(Bennington College)에서 정치이론 · 미국정치 · 미국사 · 경제사 · 철학 · 종교 등 강의
- 사회과학 서적의 저술
 - 산업 인간의 미래 (The Future of Industrial Man, John Day, 1942)
 - 경제인의 종말 (The End of Economic, John Day, 1939)
- 경제인 및 석학들과의 만남
 - 타임지 창업자, 헨리 루스와의 만남
 - 미디어 학자, 마셜 맥루한과의 만남
 - 건축학자, 버크민스터 풀러와의 만남
- 기업 컨설팅(GM, GE, IBM 등)

피터드러커 그는 누구인가

교육과 저술

- 뉴욕 대학 (1950-71) : 1950 년 뉴 욕 대 학 교 경 영 대 학 원 (Graduate School of Business, New York University) 최초의 경영학 교수
“당시 경영학 교수란 타이틀을 지닌 것이나 매니지먼트란 주제로 강의를 한 것이나 모두 세계 최초였다”
- 저술활동
 - 1950년~ 1971년 《새로운 사회》, 《경영의 실제》, 《내일의 이정표》, 《단절의 시대》,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 등 경영에 관한 개론 또는 개념에 관한 저서 저술
 - 기업의 개념 (Concept of the Corporation, John Day, 1946) : 경영학의 바이블
- <경영의 실제>
 - 스튜어트 크레이너(Stuart Crainer)는 1997년 출간한 《경영 명저》(The Ultimate Business Library) : 《경영의 실제》와 《단절의 시대》 드러커의 저서 2권을 역사적 경영 명저 50권으로 선정
 - 게리 해멜(Gary Hammel), 《경영의 실제》에 대한 논평 : “경영관리의 ‘전문화’에 대해 피터 드러커만큼 큰 기여를 한 사람은 없다. 이론과 실제, 분석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를 서로 완벽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피터드러커 그는 누구인가

도쿄와 서울

- 드러커에게 배운 일본
 - 세계2차대전후 피폐해진 일본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일본의 경우 1959년 이후 매년 드러커 교수 초빙
 - 1993년 10월 25일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일본어 판 출판기념에서의 강연 내용
 - “지금 일본은 등대가 없다”고 지적
 - “과거 일본은 일억 인구가 다 함께 먹고 살자, 그리고 미국을 따라잡자는 2개의 등대가 있었다. 그러나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강국이 된 일본은 지금 등대가 없다”
 - (이 강연 전후부터 일본은 거품경제가 꺼지고 깊은 불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 한국에 대한 관심
 - 한국전쟁이후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의 성과에 대한 높은 평가
 - “한국은 내가 30년 이상이나 주장했던, 즉 지식이 현대사회와 현대경제의 핵심자원이 라는 나의 주된 명제에 부합되는 최고 모범 국가입니다.”

피터드러커 그는 누구인가

어떻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 필리글리 신부의 질문이 주는 교훈
 - “너희들은 죽은 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
- 슌페터의 임종에서 배운 것
 - “조지프, 자네는 아직도 자네가 죽은 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에 대해 말하고 다니는가?”
 - “..... 나는 대여섯 명의 우수한 학생을 일류 경제학자로 키운 교수로서 기억되길 바란다네.”
- 드러커가 얻은 교훈
 - 첫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 질문해야 한다.
 - 둘째, 사람은 늙어 가면서 그 대답을 바꾸어야만 한다. 그것은 사람이 성숙해가면서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바뀌어야만 한다.
 - 마지막으로, 꼭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하나는 인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피터드러커 그는 누구인가

목표달성을 도와 준 사람, 피터 드러커

- 드러커 교수님, 어떻게 기억되기 바랍니까?

Business 2.0(2001); What do you want to be remembered for?
Drucker; That I helped a few people accomplish their goals.

- Conversations with Drucker

jklee(1999): When do you plan to retire?

Drucker: I've no desire to retire.

jklee(2002): Are you the oldest professor teaching in the States?

Drucker: No, several professors over 90 years, Dr. Pound taught until 97.

- 지식사회의 지식근로자

: 지식사회가 된 지금 지식근로자가 “나는 무엇에 기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부터 출발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제공한다. 그것이 자유를 제공하는 이유는, 그것이 책임을 요구하기 때 문이다.

육체노동자에서 두뇌노동자로 " from brawn to brain"

피터드러커 그는 누구인가

인간과 사회를 보는 관점의 전환, 지식사회

- 마르크스와 프레더릭 테일러
 - 무엇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자본주의의 불가피한 내재적 모순”, “프로레타리아의 소외와 착취”, 그리고 “프로레타리아 계급” 그 자체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는가?
그 해답은 생산성 혁명(productivity revolution)이다.
- 프레드릭 테일러에 대한 재평가
 - “간혹, 다윈, 마르크스, 프로이트를 현대 세계를 창조한 삼위일체로 인용되고 있다. 만약 이 세상에 정의라는 것이 있다면, 마르크스 대신에 테일러를 넣어야만 한다.”
- 테일러의 생산성혁명
 - “좀 더 열심히 일하기”(working harder)에 “좀 더 현명하게 일하기”(working smarter)로 대체